



이영진

『학력사항』

- 서울 남강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공법)

『경력사항』

- 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0년도 제32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I. 글 머리에

제3차 면접시험 때에 면접시험위원회에서 집요하게 추궁(?)하시는 통에 혹시不合格인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으나, 막상 首席合格 소식을 『考試界社』로부터 연락 받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항상 나와는 먼 것만 같던 首席合格이란 영광이 나에게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人格을 갖추고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 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과분한 영예를 한 몸에 안은 것은 아닌지 송구스럽기 그지없으며, 죄송할 따름입니다. 合格發表 이후에 좀 바쁘게 며칠이 지나고 쉬어 볼까 했는데 合格手記 청탁을 받고 또 무엇인가 일에 얽메이는 비극적 運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며, 공부한 量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合格記가 受驗生 여러분께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될 지, 또 首席合格이라는 이름 아래 저의 지나온 생활의 추한 부분은 숨겨진 채 마치 한편의 人間勝利의 드라마인 양 미화되는 것은 아닌지 자못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그간의 수험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한발 먼저 考試에 合格한 하나의 선배로서 나름대로의 공부방법을 솔직하게 소개하고, 그 方法 중에 어느 하나가 여러분의 빠른 考試合格에 一助가 되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 보잘 것 없는 合格記를 써볼까 합니다.

II. 대학입학 전

저는 충남 홍성에서 3남 3녀 중 5째(次男)로 태어나 소년시절을 고향에서 보내고, 國民學校 4학년때에 서울로 전학을 하여 당산中學校를 졸업하고, 남강高等學校를 거쳐 1980년에 成均館大學校 法學科에 입학하였습니다.

高校까지 줄곧 상위성적을 유지하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었으며, 문학적적도 많이 탐독하고 글도 조금씩 써 보는 습관도 붙이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法大로 진학하여 考試를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부모님께서 法大로의 진학을 권유하셨고, 예비고사 성적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成均館大學校 法大로 결정하였습니다.

III. 대학생활

대학에 들어와서는 처음 1년간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10. 26 事態로 학교분위기가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前期의 大學校에 실패했다는 수치감 때문에 친구들, 선배님들과 자주 술좌석을 만들고, 수업도 등한시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에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씨클에 가입하여 사회과학 서적을 주로 읽었으며, 『객지』, 『어둠의 자식들』 등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방학이나 연휴기간 중에는 여행을 많이 했는데 高校同門들과의 설악산, 계룡산 등반은 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특히 成大 法大 대선배님(判·檢事 선배님

들)과 함께한 수유리 만찬때에는 좋은 말씀과 함께 꽤 술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치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사회가 평온을 찾기 시작하자 이제는 저도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독서클럽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學校考試班인 司馬軒에 들어가 考試工夫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들이 成大 法大에 들어올 실력이면 45日 정도 공부하면 1차시험은 충분하다고 하여 저도 그 말만 믿고 한 달 보름동안을 1차 시험 공부를 했으나 4학년까지 계속 낙방을 하였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結果를 기다리자는 생활모토를 견지해온 저로서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였는데도 계속 1차시험에 낙방을 하였으므로 “考試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우연히 학교게시판에서 본 全國大學生 社會科學 論文發表大會의 개최를 알리는 방에 호감을 갖게 되어 대구 계명대학교까지 내려가 論文을 발표하는 등 차츰 考試와는 멀어지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학부과정시 1차시험에 붙지 못한 실패의 원인을 지금 생각해 보면 3학년때 몸이 아파 약 4개월 정도 휴식한 것과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英語를 선택한 것이 때문이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IV. 대학원의 생활

軍문제도 있고, 또 달리 취직하고픈 생각도 없어서 大學院에 진학하게 되었고(公法專攻), 大學院에서도 考試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하여 계속 응시하긴 했습니다만, 저의 성격상 맡은 일은 꼼꼼하면서 확실하게 하는 타입이라 大學院에서의 과제준비와 논문발표에

오히려 시간을 많이 할애 하였습니다.

또 大學院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論文 쓰는 것이 대단히 재미있는 일로 생각되어 學界로 진출할 뜻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논문을 썼으며, 문흥주 박사님과 김영수 지도교수님 원고작성도 많이 도와 드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두 마리의 토끼를 좇을 수 있다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大學院 도서실서 독문과 女學生에게 原書講讀 교재의 어려운 부분의 개인교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어 마음 한 구석에 사랑의 씨앗을 잉태하게 되었으며, 그 후 개인교습을 빌미로 자주 그녀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순진한 마음에 사랑제일주의를 신봉하고 考試공부보다는 그녀와의 만남에 신경을 더 쓰게 되었고, 그럴수록 수험준비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석사과정 3학기에는 모 선배의 권유로 國會附設機關인 韓國議會發展研究會의 지원금을 받아 碩士論文를 쓰게 되었고, 또 직접 6개월간의 의회연수 과정에 참여하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실무수습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民意의 전당인 국회내부에 들어가 정치인들의 많은 치졸함도 보았지만, 남을 이해시키고 對話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는 산 교훈도 얻게 되었으며, 많은 훌륭한 분들도 만나고 좋은 자료도 얻게 되어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으면서도 그녀에 대한 짝사랑은 계속되었고, 어지간하면 붙는다면 碩士將校試驗에서도 보기 좋게 미끄러움을 타고 말았습니다.

不合格의 순간 정말 아찔했습니다. 大學入試에서도 한번 실패했고, 司法試驗에서도 계속 실패한 데다, 석사장고시험도 실패했으니 저의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

도, 꿈도 모두 사라진 아주 불품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마저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떠나버리게 되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척 걱정이 되더군요.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지도교수님 권유로 博士課程에 入學하게 되고, 1986년 8월에 軍에 入隊하여 여유있게 자신을 정리하고 단련하는 시간을 거쳐 1988년 11월 10일에 軍에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V. 합격을 위한 새로운 도전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 자신도 제대할 무렵에 장차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大學 1年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교수님이 장차 40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學界로 나갈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外國으로 유학을 가야하고, 이끌어 주실 끈(?)도 튼튼해야 하고, 또 300명씩 배출되는 司法試驗을 통과하지 못하고 호구지책으로 강단에 섰다는 오해는 피해야 할 것 같고 등등의 여러 고민 끝에 김영수 지도교수님과 상의를 한 끝에 제대 후 2년간 시간을 할애하여 考試에 먼저 합격하고 난 다음에 學界로 진출하는 것이 훨씬 모양도 좋고 자신의 앞길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대와 동시에 필요한 책을 새로 구입한 후 비장한 각오로 계룡산으로 들어가 다시 司法試驗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失敗를 경험삼아 나름대로의 守則을 정하고, “이번이 마지막 機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 제1차시험 준비

(1) 준비기간

45일이면 충분하다는 선배들의 말이 허구였다고 생각하고, 1차시험 합격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주위 친구들의 말에 따라 이번에는 제대 후 1988년 12월부터 바로 1차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 5개월을 과감히 투자하였으나 시험보는 당일까지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안들고 오히려 사놓고 보지 못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2) 공부장소

제대 후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똑똑한 후배들은 자꾸 붙어나가는 통에 학교고시반에 들어가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되어, 延大 法大를 나온 고교동기와 함께 계룡산 기슭에 있는 少林院이라는 조그마한 암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위경관이 수려하고, 경내조경을 잘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수도 적어서 공부장소로도 적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저의 방은 아침해가 뜨면서 바로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늦잠을 잘 수 없는 자동기상장치(?)덕택으로 아침 6時 정도에 일어나, 적당한 운동을 한 후 아침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 공부방법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취침하는 습관을 길렀으며, 먼저 基本三法을 1회독한 후, 非法律科目을 보았습니다. 대략 하루에 10~13시간 정도 공부했으며, 基本三法은 2차시험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갔으며, 하루에 120page 내지 170page씩 읽어 일주일에 책 1권을 독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날그날의 공부시간과 독서량을 체크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획에 맞추어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은 시간을 루즈하게 잡아 진도가 못 나간 부분을 보충하고, 산책 또는 목욕 등을 하면서 슬럼프가 오지 않도록 유의했으며 배드민턴을 틈틈히 하며 체력을 유지하고, 아무래도 절음식은 肉類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계제가 되면 가끔 公州 시내로 나가 고기를 사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실패가 선택과목에 있었다고 생각되어 이번에는 國際私法과 獨逸語를 택하여 獨逸語는 매일 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결국 獨逸語의 선택이 오늘의 합격을 좌우한 셈이 되었습니다.

또한 1차시험은 공부도 많이 해야 하지만 손발력과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시험문제에 관하여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자주 나오는 문제는 따로 정리하여 시험당일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수험당일의 풍경

서울에 계속 응시하여 실패했으므로 이번에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 합격해 보자는 생각으로 大田지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며, 延大 친구 자형덕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비싼 호텔(유성 리베라)에 묵었습니다.

1, 2교시 모두 열심히 보았으나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특히 民法判例의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國史, 文化史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어 당황하였습니다. 經濟學은 國際經濟 부분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며 國際私法은 1~2개 틀린 것으로 생각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점수가 과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답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오전에는 2개를 잘못 이기하고도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1개를 역시 고치지 못하고 제출하여 마음이 썩 홀가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종료 종이 울리고 왜 그리 힘이 빠지는지... 그때 찾아와 향응을 베풀어 준 영호, 용태에게 감사드립니다.

2. 제2차시험 준비

(1) 준비기간

1차시험을 끝낸 후 少林院에 싫증을 느껴 바로 집을 집으로(홍성) 옮겨놓고 며칠 인사를 다니면서 쉬다가 大田 누님댁에 기거하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한 달간 공부했으나 도서관에의 등 학교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이 아까워 1989년 6월 8일 충남 천안근교의 靑雲岩考試院으로 옮겨 올해 2차시험 볼 때까지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2) 공부장소

靑雲岩에서 실질적으로 2차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도 오래되었고, 군대에서 法書를 전혀 보지 못하여기 때문에 기억의 재생을 위해 母校에서 실시하는 考試特講에 적극 참가하였고, 大學院(博士課程)에도 복학하여 시험공부에 지장이 없는 한 참석하였습니다. 김종원교수님의 日語原書講讀(行爲論)수업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많은 시간할애를 요하였으므로 애를 먹었습니다.

1차시험에 합격을 한 후 학교고시반(司馬軒)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정보의 수집, 그룹스터디의 참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기도 탁하고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考試院에서 성실하게 基本書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되어 특강때나 모의고사 응시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考試院에서 공부했습니다.

靑雲岩考試院에서는 주인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정성스런 배려와 成大 同門들의 진지한 시험준비로 많은 능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채에 계신 일명 도사할아버지(장재순 할아버님)께서 친손자 이상으로 대해 주셔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考試院은 호도과수원 한 가운데 있어서 경치가 좋고, 주위에 감나무가 많아 늦가을에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고, 호두와 감을 너무 많이 먹은 탓에 화장실에 드나드는 고생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추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하던 成大 同門들, 특히 한기광君(제32회 사시합격)과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막강한 實力의 보유자 최석훈氏, 정감어린 광정찬氏, 다재다능한 김승래氏, 김명언氏 등 많은 諸賢들의 합격소식이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靑雲岩의 여러 가지 추억, 특히 시험을 끝나고 옆마을 국민학교에 가서 비를 흠뻑 맞으며 축구하던 일, 문도가네를 흥내내어 스테미너 식품인 뱀잡아 구워 먹던 일, 오수리담낭을 生食하던 일 등...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3) 공부방법

1차시험 불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운 좋게 그 관문을 통과했고, 어렵게 붙은 1차시험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하여 2차시험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실제로 동시합격자 50~60명을 제외하면 2차시험의 경쟁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2차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 붙이면 모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는 불안과 공포(?)속에서 매일매일 생활수칙대로 보냈습니다만 역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의 저의 守則을 적어 보겠습니다.

(가) 생활패턴의 단순화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밤 12시에 취침하여 공부에 전념하려고 노력했으며, 考試院 친구들과과는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했으며, 커피타임, 라면타임도 되도록이면 피하곤 했습니다. 1차시험때와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계획표에 따라 빈틈없이 공부하고, 일요일은 가끔 친구 결혼식에 참가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하고(사실은 세수도 걸르는 날도 많았음)밀린 빨래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집안의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도, 편지도 삼가했으며, 꼭 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을 제외하고는 공부에 온 신경을 집중하였습니다.

(나) 학교특강과 개념에 충실

대학을 졸업한 지 꽤 오래되었고, 교과서도 그간 많이 바뀌었고, 중요부분에 대한 감각도 무뎠으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2차시험 특강에 충실하려고 했으며, 특강기간 중에는 역시 시간절약을 위하여 司馬軒을 이용했습니다. 특강진도에 맞추어 基本書를 읽고, 특강 시에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基本書를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은 중요논문을 체크해서 보충했으며 교과서 여백에 그요지를 적어 넣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는 먼저 개념을 암기하고, 문제의 제목을 먼저 본 후 전체 내용을 스크린하고, 교과서의 目次와 저의 기억이 일치했는가

를 확인한 후 다시 처음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념할 것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로부터 요건, 효과, 제한 등의 모든 目次를 생각해 낼 수 있으므로 개념노트를 만들어 틈틈히 보는 습관을 붙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그룹스터디 문제

그룹스터디를 하는 중에 他人과 함께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기억의 효과를 배가 시키고, 또 자신외의 상대방의 思考의 틀 내지 論理의 構成도 알 수 있어서 이로운 점이 많다고 생각되었으나, 저는 군대에서 썩는 동안 머리가 깡통구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절대적인 독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룹스터디에 참가하지 않고 기본교과서의 회독수를 늘리고, 모르는 문제는 식사중이나, 산책 중 친구에게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소했습니다. 요즈음, 그룹스터디가 수험가에 일반화되고 있는 듯한데, 노장과 소장, 男女가 섞여서 스터디그룹을 형성하여 자기가 맡은 부분을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라) 단권화 및 sub-note 문제

길어진 수험생활로 인하여, 또 大學院 공부를 한 탓으로 책은 많이 사게 되었으나, 단권화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는 특별히 단권화 작업을 하지는 못하고 정평있는 기본서를 정하여 여러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심나는 부분은 참고서나 논문을 보아 기본교과서 여백에 메모해 두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2차시험 2개월 전에는 중요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sub-note를 하려 했으나 시간부족으로 일부과목에 한하여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약 10~20문제 정도를 간단히 답안작

성 연습삼아 sub-note를 작성하는데 그쳤습니다.

(4) 수험당일의 풍경

(가) 출제경향

제32회 사법시험은 行政法만 제 생각이 적중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과목은 예상에서 벗어나 매우 당황했습니다.

첫날, 國民倫理부터 시작하여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와서 무척 긴장하였고, 특히 異同問題 내지 比較問題의 형식이 많아 보다 깊은 생각을 한 후에야 답안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문제집 中心으로 예상문제만 공부하지 마시고, 기본교과서를 중심으로 구석구석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폭넓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 답안작성요령(채점자 원점주의)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보기만 할 따름이고 채점은 교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채점하시는 교수님의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대한 양을 일정기간에 채점하시는 교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운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目次도 體系的으로 달아야 할 것이며(때 목차마다 배점이 정해지므로) 첫 인상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序論에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짚어주고 개념정의를 분명히 한 후에 전체적인 조감을 해 주는 것이 고득점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判例언급도 득점에 유리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구요.

(다) 법전의 활용

다른 시험과는 달리 사법시험에서는 法典

을 주므로 이를 武器로 삼아서 法典을 이용한 해석학적 전개능력이 탁월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답안에도 관련 法條文을 반드시 明記하여야 할 것이며, 시간절약을 위해서는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法條文은 아예 외워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예컨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형소법 제289조, 공소장변경 제298조, 면소판결 제326조 등).

(라) 포기하지 않는 자세

저의 분석으로는 3문제 중 1문제는 예상했던 문제이고, 또 1문제는 그럭그럭 답안구성할 수 있는 문제이고, 나머지 1문제는 평소 잘 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잘 아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많이 쓰려고만 할 것이 아니며, 또 모르는 문제는 전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식을 총동원하여 어느 정도의 체계는 잡아 주어야 基本的인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되며, 시간안배를 잘하여 큰 문제보다도 작은 2문제에 오히려 충실하게 하는 것이 고득점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 시험 4일간의 전략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실력이 단 4일간의 시험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시험기간 중에 조그마한 차질도 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司馬軒 뒤에 하숙집을 구하여 일주일 전부터 머물면서 현지적응훈련(?)을 했고, 기간 중 옆집 택시를 전세 내어 친구들과 함께 이용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양이 많더라도 시험 전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는 부분에는 노란 간지를 끼워놓아 우선적으로 보도록 했고 잠을 꼭 자야 머리가 맑을 것 같아 5~6시간씩 잤습니다. 우황청심환을 먹으면 머리

가 맑아진다고 하여 수험가에서는 많이 애용되고 있으나, 저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비타민제로 대처했습니다.

첫날 國民倫理부터 의의의 문제가 출제되어 당황했는데,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짱으로 차분히 目次를 構成하여 답안작성에 임했습니다.

시험 4일 동안 같은 하숙집에 머물면서 단지 후배인 罪로 제가 시험보는데 많은 사역을 담당한 양홍규 후배의 내년 2차시험 합격을 기대합니다.

3. 3차시험(면접시험)준비

주위에서 3차면접시험은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2차시험 발표 후에는 책이 손에 잡히지 않아 특별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考試界』 잡지에 매년 11월호에 게재된 그간의 3차시험의 기출문제를 대강 훑어보고, 時事的인 문제를 친구와 함께 얘기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大田에서 2차시험 원서를 접수했으므로 맨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을 보았는데 면접위원님께서 꼬치꼬치 캐어물어서 추궁하는 통에 진땀을 흘렸으며 면접 직후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VI. 글을 맺으며

1980년에 大學에 入學하여 1990년에 합격했으니, 중간에 외도(?)가 있었지만, 꼭 10년 만에 司法試驗 合格의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기쁨보다는 후련함이 앞서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수험서와 씨름하면서 考試合格의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老將 선배님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해 마지않으며, 제가 首席 合格 했음에 대단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의 進路는 연수원에서 좀 더 공부한 후에 父母님과 지도교수님과 상의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만, 좀 더 실력을 충실히 쌓으면서 大學院도 마치고 實務와 理論을 두루 겸비한 법조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實力과 人格面에서 많이 부족한 제가 과분하게 首席를 차지하여 죄송할 따름이고, 여러모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찾아뵙고 인사를 못드린 분들이 많은데 차제에 紙面을 통해서 삼가 인사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친지분들, 가까운 친구 용태, 규호, 많은 자료를 물려준 범연, 영빈씨,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같이 1年여를 생활한 靑雲岩考試院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좋은 法曹人이 되도록 지도편달을 바라옵고 계속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考試는 탁월한 머리보다는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자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의복인 만큼, 몇 번의 좌절이 있었다고 하여, 혹은 주위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심전력으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시험에 모든 것을 걸면 반드시 合格은 오고야 말 것 입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合格의 영광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과연 이 合格記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케 한 것은 아닌지 자못 두려움이 앞서며, 글재주 없는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合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